

공·사립 격차 여전...광주 상위 20곳중 공립고 2곳 뿐

교육부 전국 중·고교 학업성취도 분석

광주 국·영·수 보통학력 이상 승덕고 유일...전남은 창평고 학력 향상도 송원여고·서석고 최고...광주고·전남여고 '선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9일 공개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광주 지역 중·고교별 학력 실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됐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학교 향상도' 뿐 아니라 '보통학력 이상' (교육 과정의 50% 이상 이해) 비율 학생들 현황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시선이 쏠린다.

◇공·사립 격차 여전=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1668개 고등학교와 3122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고등학교 중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에서 응시생 전원(100%)이 보통학력 이상을 기록한 학교는 승덕고가 유일했다. 성취도 평가는 중·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당시 승덕고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였다. 2학년 학생 전원이 보통학력 이상이라는 의미로 학업이 극히 부진한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다.

서석고는 국어 98.1%, 수학 98.7%, 영어 97.1% 등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승덕고 다음으로 높았고, 자사고인 송원고(국 95.4%·수 98.9%·영 98.2%)가 뒤를 이었다.

학업성취도 평가 상위 20개 학교 중 공립은 상일

여고(자율형 공립고)와 문정여고 2곳에 불과했다. 상일여고는 과목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국어 94.9%, 수학 92%, 영어 94.9% 등으로 나타났고, 문정여고는 국어 93.7%, 수학 90.0%, 영어 93.2% 등으로 평가됐다.

이른바 '공저사고'(公低私高) 경향이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동아여고와 동신고는 올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 순위가 20위 이내에 포함됐다.

◇어느 학교가 열심히 가르쳤나='학교 향상도' 평가는 올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 고2, 중3 학생들이 중 3과 초등 6학년 때 치른 학업성취도 성적과 비교해 얼마나 성적이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보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학교가 노력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열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송원여고의 학교 향상도 평가가 눈에 띈다. 송원여고의 경우 광주지역 고교 중 서석고 다음으로, 여고에서는 향상도가 가장 높았다. 송원여고는 지난해 과목별 향상도가 16번째 순위였다는 점에서 학교측의 노력이 괄목할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보통이상 학생 비율과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 30위권 밖에 있던 자율형공립고인 광주고와 공립인 전남여고의 향상도가 크게 상승한

2015 광주 고교(2년) 과목별 향상도 순위

<중3년에서 고교 배정뒤(입학) 2학년 성적향상도, %>

순위	학교명	국어	수학	영어	합계
1	서석고	9.9	9.6	4.4	23.9
2	송원여고	8.6	6.9	6.2	21.7
3	승덕고	8.9	8.4	2.8	20.1
4	대광여고	9.8	7.7	2.3	19.8
5	동신고	5.8	7.7	4.9	18.4
6	광주고	6.3	7.1	4.6	18
7	동아여고	6.1	7.3	3.8	17.2
8	대동고	6.9	5.9	4.2	17
9	조대부고	6	5	5.5	16.5
10	동신여고	7.3	7.3	1.5	16.1
11	광덕고	5.6	6.3	3.9	15.8
12	설월여고	8.7	4.3	2.5	15.5
13	보문고	3.7	6.4	5.3	15.4
14	전남여고	7.7	3.8	3.2	14.7
15	고려고	4.7	4.5	5	14.2
16	살레시오고	6	4.3	2.3	12.6
17	경신여고	5.9	4.8	1.1	11.8
18	송일고	4.3	5.8	1.7	11.8
19	인성고	4.9	1.8	4.1	10.8
20	조대여고	4.6	4.1	2.1	10.8

광주 고교별(2년)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보통학력 이상은 통상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단위:%>

순위	학교명	국어	수학	영어	합계
1	승덕고	100	100	100	300
2	서석고	98.1	98.7	97.1	293.9
3	송원고	95.4	98.9	98.2	292.5
4	대광여고	97.9	95.7	98.6	292.2
5	동아여고	97.6	94.4	96.5	288.5
6	송일고	93	97.2	97.9	288.1
7	광덕고	91.5	98	98.3	287.8
8	동신여고	95.8	92.8	94.3	282.9
9	송원여고	96.3	89.2	96.6	282.1
9	금호중앙여고	95.4	91.9	94.8	282.1
11	상일여고	94.9	92	94.9	281.8
12	설월여고	94.8	90.9	95.9	281.6
13	수피아여고	93.9	91.5	95.5	280.9
14	대성여고	94.4	88.5	97.2	280.1
15	대동고	92	92.3	94.8	279.1
16	동성고	92.4	92.7	93.8	278.9
17	동신고	88.4	95	95	278.4
18	문정여고	93.7	90	93.2	276.9
19	고려고	88.2	92.9	95.3	276.4
20	인성고	87.9	92.6	93	273.5

점도 눈길을 끈다.

한편, 전남지역 고교 중 응시자 전원이 보통학력 이상을 달성한 학교는 창평고가 꼽혔다. 창평고는 국·영·수 과목 모두 보통학력 이상 100%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수학(98.2%) 과목이 못 미쳤다.

지난해 국·영·수 모두 100%를 달성했던 능주고

는 올해 영·수 과목만 100% 보통학력 이상을 달성했고, 국어(99.5%) 과목은 지난해보다 못 미쳤다. 장성고는 영·수 과목에서 100% 보통학력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100%를 달성한 과목은 없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파산자 등친 법무사 여직원 대행비 횡령...징역 2년2개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파산·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등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욱 판사는 공문서 위조·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A(여·34)씨에 대해 징역 2년2개월과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 명령을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B(93)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등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실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도 법원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한 것처럼 결정문을 위조해 의뢰인을 속였다.

김 판사는 “A씨의 사기범죄 피해액이 1억원을 넘어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가장 큰 신뢰가 주어질 때 할 판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법무사 B씨는 9년 가까운 장기간동안 A씨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지만, A씨의 방법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누리 예산 끊겨 교육환경 악화”

시·도교육감협 “내년 예산안에 즉각 편성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취국 광주시교육감)는 30일 누리과정(무상보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 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줄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완도 해상 소형선박 표류 사고 잇따라

여수와 완도 해상에서 기관고장에 따른 소형 선박 표류 사고가 잇따라 출항 전 세심한 점검이 요구된다.

30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께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쪽 4km 해상에서 선장 손모(54)씨가 몰던 여수 선적 연안복합 어선 S호(7.31톤·승선원 4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안전지대로 무사히 예인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3시 41분께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앞 350m 해상에서 박모(62)씨가 운항하던 레저고무보트의 스크루가 어망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 해경 도움으로 예인되는 등 여수 해상에서 이틀 새 소형 선박 3척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던 중 해경에 구조됐다. 완도 해상에서도 지난 29일 오전 8시 49분께 낚시꾼 3명을 태운 레저보트(2.95t)가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해경에 예인되는 등 이날 하룻동안 완도 해상에서 소형 선박 2척이 잇따라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해돋이	07:22	해질녘	22:42
해지기	17:21	달 뜨기	11:32

대체로 맑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14 보성 맑음 -2/12
목포 맑음 3/13 순천 맑음 3/14
여수 맑음 6/13 영광 맑음 -1/13
나주 맑음 -2/14 진도 맑음 1/14
완도 맑음 3/14 전주 맑음 1/12
구례 맑음 -1/14 군산 맑음 0/11
강진 맑음 0/14 남원 맑음 -1/12
해남 맑음 -1/14 홍산도 맑음 8/12
장성 맑음 -2/1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남동~남	0.5
	먼바다	북~북동	0.5~1.5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동)	북~북동	0.5	동~남동	0.5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동~남동	1.0~1.5

◇물때
목포: 밀물 05:27, 썰물 10:38, 18:10, 23:24
여수: 밀물 00:07, 썰물 06:08, 12:44, 18:50

◇주간 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6/12	3/6	0/5	2/8	2/9	2/10	1/11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낮음
체감온도: 관심

www.sanigoun.com

침단 바라볼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든든한 교육, 편리한 생활, 시원한 교통, 쾌적한 환경은 기본입니다.
전세대 남향배치, 전세대 4-베이에 눈부신 미래가치까지 누리십시오.
광주가 부러워하는 단 한 자리, 여기는 침단 용두 산이고운입니다.

침단 프리미엄, 그 위에 서다!

침단 용두 산이고운

SANIGOUN

모텔하우스 오픈기념 경품 이벤트

- 경품내역: 안파자, 40인치 TV, 양면행선고, 드림책가, 자전거, 텀스기 등
- 주말 경품행사
- 청약자 경품행사
- 계약자 경품행사

5-18 기념공원

침단 용두 산이고운 모텔하우스 위치

침단 용두 산이고운 청약일정

- 특별 공급 12월 1일 (화)
- 1순위 청약 12월 2일 (수)
- 당첨자 발표 12월 9일 (수)

84㎡ 단일평형 220세대 문의 062) 376-6660

○스디펜씨엔케이(주) ○SBI 산이건설(주)